

일본 신화: 황천으로

이자나기는 사랑하는 이자나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자나미를 죽은 자가 살고 있는 황천에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이자나기는 황천에서 이자나미를 발견하고 산 자의 세계로 돌아가 함께 끝까지 국가를 건설하자고 이자나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미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만든 것을 먹었기에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자나기는 계속해서 이자나미가 황천에 사는 신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자나기가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없었던 이자나기는 이자나미가 신들을 설득하고 있던 세에 돌아보았고, 심하게 부패해버린 이자나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이자나미는 지옥의 마귀할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자나기는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마귀할멈에게 벗어나고자 뒤로 씨앗을 뿌리면서 도망쳤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지면에 떨어지자 곧장 포도나무를 닮은 식물로 자라면서 마귀할멈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자나기는 마귀할멈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대 일본에서는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복숭아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황천의 입구에서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에게 따라 잡히기 전에 지나온 길을 거대한 둥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자나미는 바위 너머로 이자나기를 저주하며 매일 1,000 명의 목숨을 영원히 앗아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이에 대항하고자 매일 1,500 명의 아기를 세상에 내보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맹세는 고대 일본에서의 인구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